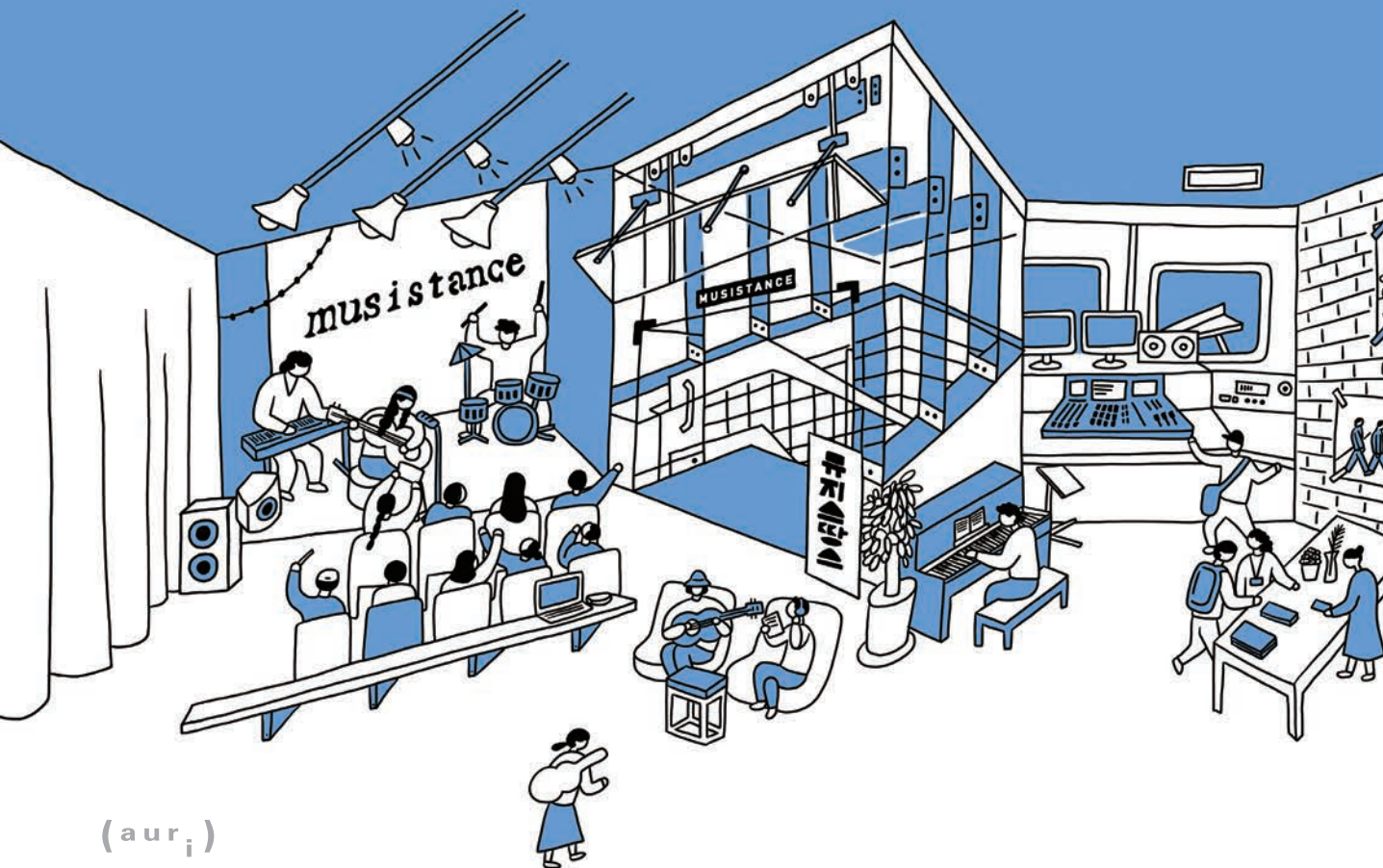


독립 음악인의 창작 공간

뮤지스땅스



좋은 공공건축 02

독립 음악인의 창작 공간

뮤지스땅스

모두 함께 만드는 ‘좋은 공공건축’을 위하여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건축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환경을 이룹니다. 특히 보육, 보건, 여가,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 공간인 공공건축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이 메마른 일상에 휴식이 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공건축’이란 어떤 것일까요? 공공건축은 모두를 위한 건축입니다. 하지만 많은 공공건축 사업이 사용자의 요구와 필요보다는 공급자의 편익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럴듯한 외형만 갖춘 공공건축물이 양산되어 공공을 위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좋은 공공건축’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만드는 공공도서관-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주민이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례입니다. 이번에 펴내는 ‘독립 음악인의 창작 공간-뮤지스팡스’는 활기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만든 사례입니다. 기획 초기부터 시설 조성, 운영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공공기관, 음악인, 설계자, 시공자 등 참여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공공건축’ 시리즈가 공공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모두 함께 좋은 공공건축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건축은 근사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조직하는 일이다.

건축가로서 내가 한 일은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요구를
공간으로 번역한 것이다.

- 정기용

First life, then spaces, then buildings
-the other way around never works.

가장 먼저 삶, 공간, 그리고 건물의 순서로 고민해야 한다.
반대 순서는 옳지 않다.

- Jan Gehl(얀 겔)

I 공공이 지원하는 예술인의 창작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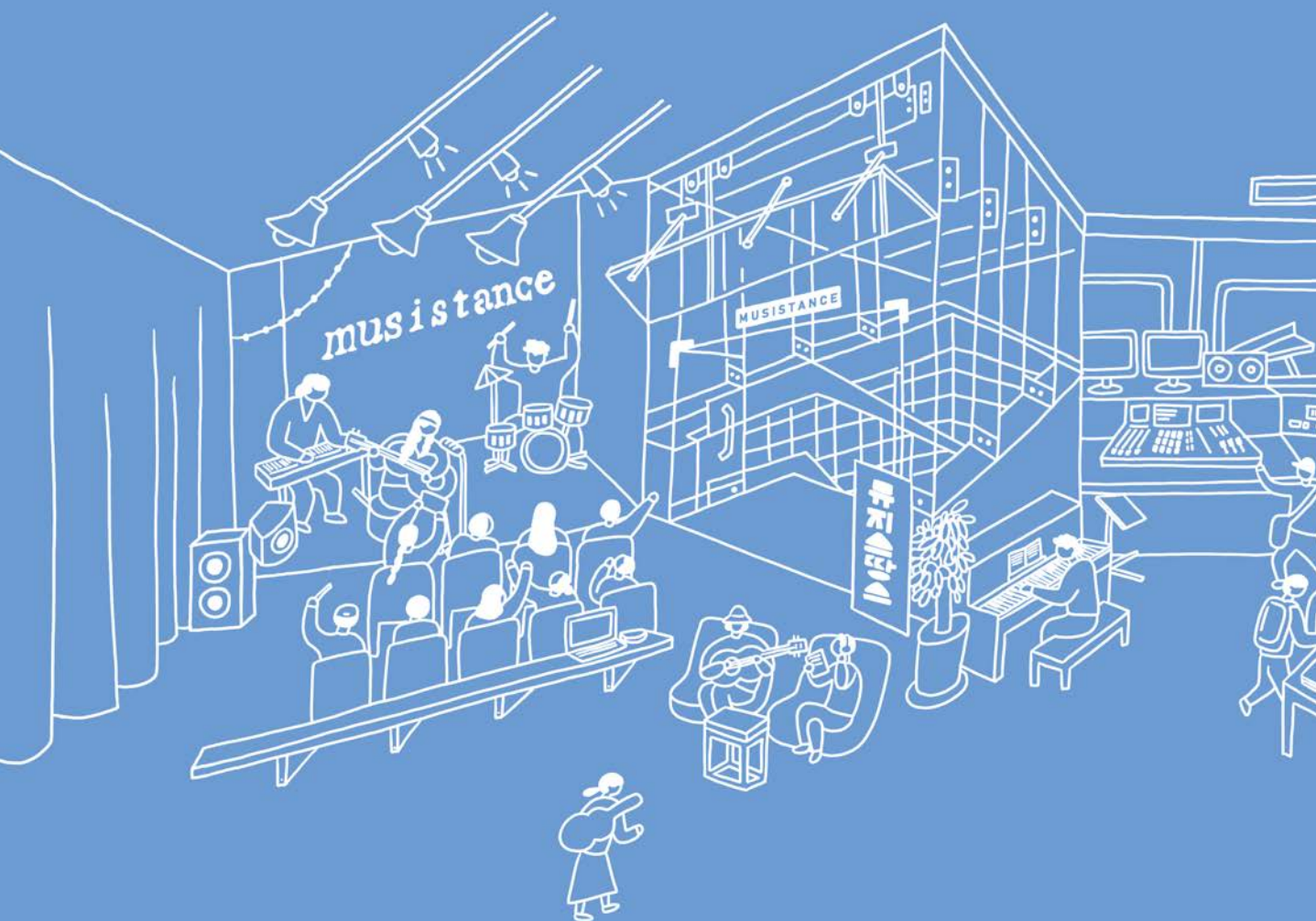
공공이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하다	08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 사업	10

II 창작 독립 음악인들의 놀이터, 뮤지스팡스

왜 '뮤지스팡스'인가?	15
'뮤지스팡스' 사업 개요	17
'뮤지스팡스'는 어떤 곳일까?	18
'뮤지스팡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4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만족하는 '놀이터'	35

III 뮤지스팡스, 그 후

창작 독립 음악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 방향	44
신나게 즐기며 창작하는 음악 공간을,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꿈꾼다	45
뮤지스팡스 주요 프로그램	46
뮤지스팡스 이용 안내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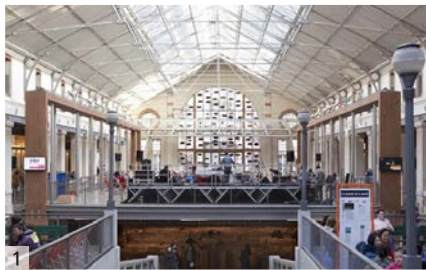
좋은 공공건축 02
독립 음악인의 창작 공간

공공이 지원하는 예술인의 창작 공간



공공이 문화예술 창작을 지원하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문화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이 문화예술을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전국 각지에 들어섰다. 그러다 점차로 문화예술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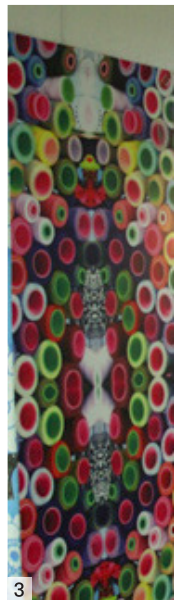
출처: <https://en.parisinfo.com/paris-museum-monument/71517/Le-Centquatre>(*17.12.22)



출처: <http://www.torontoartscape.org/artscape-wychwood-barns>(*17.12.27)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3



4



©연희문학창작촌



5

공공이 지원하는 문화예술의 분야도 다양해졌는데, 특히 대중예술의 범주까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공공의 지원으로 도시의 빈 공간을 예술가의 창작 공간으로 재 활용하여 예술가와 대중이 모여드는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현지

1 파리지 104 Centquatre-Paris

1874년부터 약 120년 동안 파리지의 장례시설로 이용되던 건물을 예술가의 거주와 작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전 세계 예술가들의 공연과 전시가 상시로 열리고, 지역주민 모임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파리지의 주요 예술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 토론토시의 위치우드 창고 Artscape Wychwood Barns

도시전철 수리소 건물을 예술가들의 거주와 창작 공간, 전시·교육·체육 등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아이들을 위한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3 신당 창작아케이드 공예·디자인

서울시 중구 황학동 서울중앙시장 지하에 있는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인근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쇠락한 지하쇼핑센터 내 50여 개의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공예작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연희문학창작촌 문학

2009년 서대문구 연희동 옛 시사편찬위원회 건물에 들어선 문학창작촌은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하여 문학인들의 집필활동을 돕고 있다. 집필실과 산책로, 커뮤니티룸 등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제공한다.

5 아르코공연연습센터@울산 공연

‘아르코공연연습센터@울산’은 연습 공간이 부족한 민간공연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2017년 11월 개관했다. 옛 보건소 건물과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한 이곳의 운영은 울산문화재단이 맡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세미나도 진행될 예정이다.



©울산문화재단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 사업

음악인들의 창작 작업, 공연, 음반 제작 및 판매 등이 대부분 자본에 지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독립 음악인이 자립적으로 음악활동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 음악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음악창작소 구축 운영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를 통해 음악산업의 상업화와 기존 지원 사업의 한계, 그리고 독립 음악인들이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창작활동에 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필요성이 분명해졌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13년 7월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콘텐츠 육성 및 지역 기반 강화 전략에 따라 음악 부문에서는 인디·장르 음악 창작을 지원하는 ‘음악창작소’ 조성, 인디 뮤지션 발굴·지원, 전문 공연장 건립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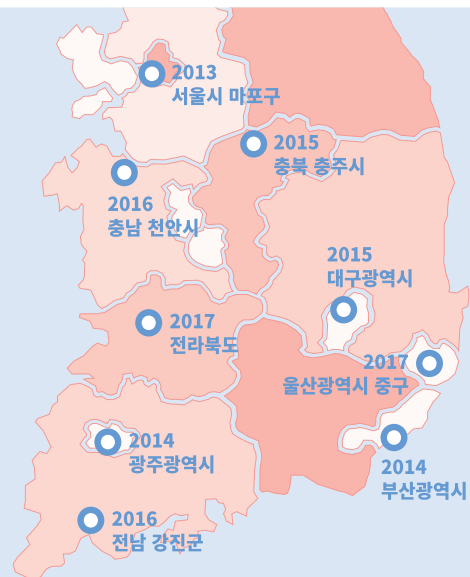
이후 20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마포구 및 음악발전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홍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독립 음악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서울 음악창작소, 뮤직스팡스)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것은 독립 음악인들의 자생력 기반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창작 인프라 지원 사업이었다.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2개소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음악창작소의 목적

-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
- 음악인들에게 창작에서부터 작품이 음반(음원)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도모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선정 현황

2013	서울시 마포구
2014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2015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충주시
2016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남도 천안시
2017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중구





1 ©광주 음악창작소

1 광주 음악창작소

(2014년 공모사업 선정, 2015년 8월 개관)

광주 사직공원 내 옛 광주KBS 건물을 리모델링한 지역 독립 음악인들의 창작 공간이다. 광주 음악창작소는 개관 첫해부터 음악경연대회 우승자를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년 여간 음반 제작과 유통·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 출신의 뮤지션이자 대안문화공간 운영 경험이 있는 남유진 감독의 지휘 아래 광주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폭넓은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2 부산 음악창작소

(2014년 공모사업 선정, 2015년 11월 개관)

부산대학교 대학가에 위치한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의 지하 공간을 개조하여 독립 음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작곡·녹음·믹싱·마스터링과 음반 발매 및 유통, 뮤직비디오 제작과 쇼케이스 공연까지 독립 음악가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음악과 작곡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음악 창작활동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3 대구 음악창작소

(2015년 공모사업 선정, 2016년 9월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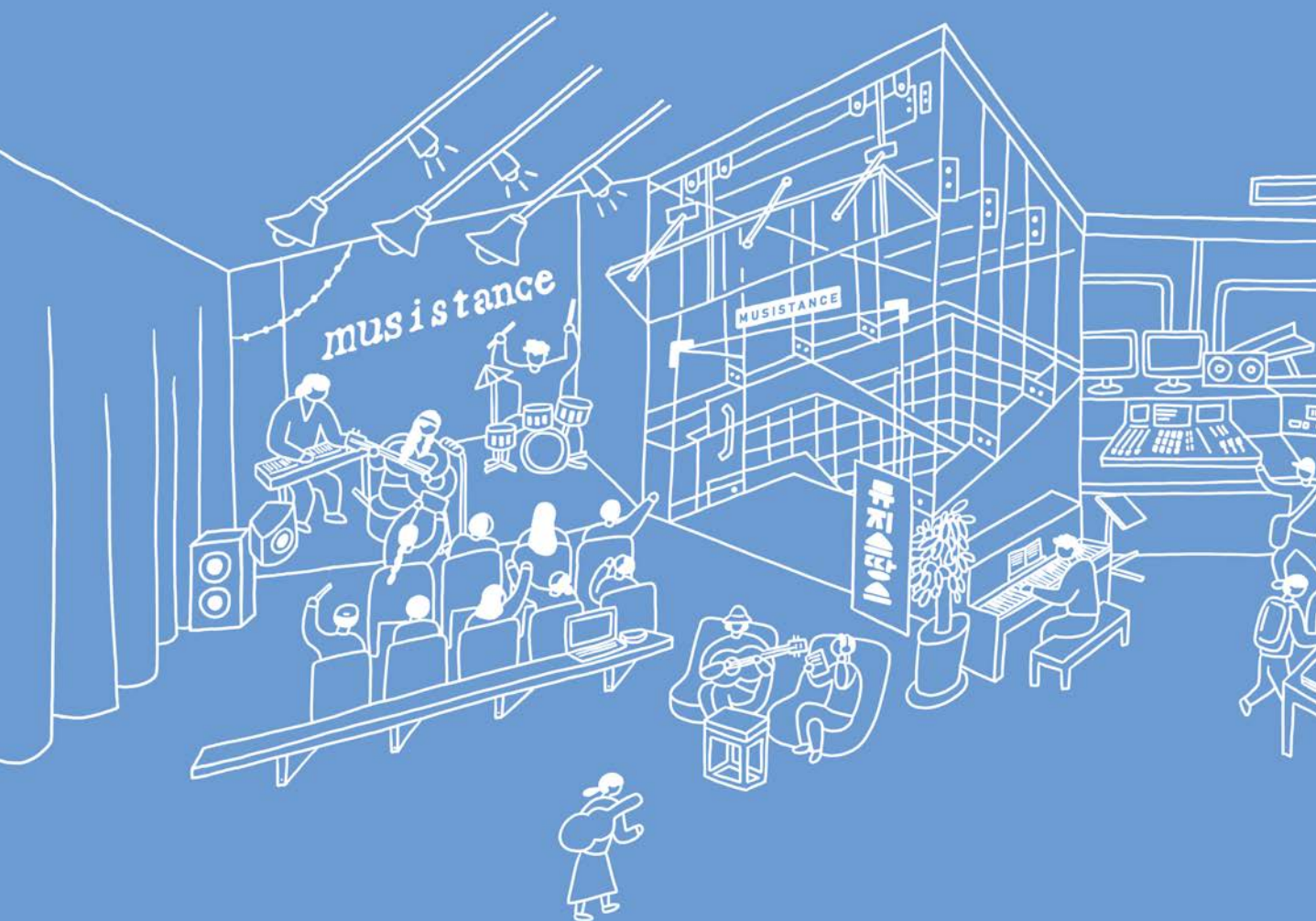
대구시 남구 대명동 공연문화거리에 위치하여 일대의 소극장과 함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남구청소년창작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녹음 스튜디오와 90석의 공연장을 갖추었고 음반 제작과 공연을 동시에 지원한다. 남구청이 운영하며 가수 윤상을 명예소장으로 위촉하여 운영 및 홍보, 신진 음악가 발굴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2 ©부산 음악창작소



3 ©대구 음악창작소





좋은 공공건축 02
독립 음악인의 창작 공간

창작 독립 음악인들의 놀이터, 뮤지스팡스



Space for Independent Musicians

6차선대로 밑에 있는

기존의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진

“뮤지스팡스(Musistance)”는

음악을 뜻하는 ‘뮤직, Music’과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나치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던 프랑스의 지하독립군을 뜻하는

‘레지스탕스, Resistance’의 합성어로

현 음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당당히 맞서가며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갈 독립음악인들의

지하본부를 표방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뮤지션의, 뮤지션에 의한, 뮤지션을 위한!

음악하는 우리들의 지하본부,

여기는 뮤지스팡스입니다.

©뮤지스팡스



왜 ‘뮤지스팡스’인가?

선정 배경

시민들은 문화를 향유하기를 점점 더 원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또한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제공하거나 공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신진 또는 독립 예술가들은 상업화된 환경과 대형 시장에서 자생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특히 홍대 인근의 창작 독립 음악가들은 상권 개발로 인해 주 활동지역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음악 창작을 위한 공간 마련과 관련 지원을 꾸준히 요청했으며, 정부는 수준 높은 창작물 제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 음악창작소(뮤지스팡스)가 조성되었다.

뮤지스팡스는 공공사업으로는 드물게 초기 기획 단계부터 시설 운영까지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최백호 소장, 사단법인 한국음악발전소)가 적극 참여하여 시설을 조성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독립 음악인들의 특성과 수요, 요구되는 기능에 부합하는 요건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사업 관계자들이 적극 협업하여 사업 목표와 시설 기능에 부합하고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뮤지스팡스는 독립 음악인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탄생했고, 개관 3주년을 맞은 현재 독립 음악인들의 창작 공간이자 놀이 공간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국무총리상은 저이용 공간 및 건물의 재탄생 부문에 출품한 서울시 마포구의 ‘음악창작공간 뮤지스팡스 리모델링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마포문화원이 청사로 이용하던 낙후된 지하 보도 공간을 독립 음악인의 창작활동 공간이자 시민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업으로, 문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재생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국무총리상 수상작 심사평

이우종 총괄심사위원장, 가천대학교 교수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508231617089103>(*17.6.28)



‘뮤지스팡스’ 사업 개요

사업명	꿈꾸는 뮤지션을 위한 음악창작 공간 리모델링 사업
용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추진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마포구청, 사단법인 한국음악발전소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38 지하(아현동 600-2)
대지면적	18,575㎡
건축면적	114.31㎡
연면적	1,273.72㎡
규모	지하 2층
총사업비	35억 원 - 창작 공간 조성비: 15억 원 - 장비 구축 및 운영비: 20억 원
기존시설	애오개역 지하보도, 지하 공간(舊 마포문화원)
주요시설	연습 공간(개인 작업실, 밴드 작업실), 녹음 및 공연 공간(녹음실, 공연장), 편의 공간 등(다목적홀, 카페, 휴게실 등)
설계	본종합건축사사무소 (2014.1.~2014.5.)
시공	(주)유안인터내셔널 (2014.8.~2014.12.)
사업기간	2013.8.~2014.12
수상이력	2015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2016 서울건축문화제 제34회 서울시 건축상 시민공감특별상



©뮤지스팡스

‘뮤지스팡스’는 어떤 곳일까?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학교가 있는 대로변, 도심 주거지의 익숙한 풍경 안에 투명한 유리 박스가 보인다. 도어벨을 누르고 지하보도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면 음악인들의 공간, 뮤지스팡스가 펼쳐진다.

이 지하 공간은 1997년 지하철 공사 중 조성되어 마포보건소 아현분소(1997.6~2002.8)로, 마포 문화원(2002.9~2013.7)으로 사용되다가 마포문화원이 이전하면서 독립 음악인들을 위한 뮤지스팡스로 재탄생했다.

대부분의 음악창작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지하에 위치하지만 ‘뮤지스팡스’는 기존 음악창작실과 달리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이다. 뮤지스팡스는 음악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과시적인 디자인이나 형식적인 공간을 배제하고 창작 독립 음악인들의 작업과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집중했다.

소규모 공연장, 녹음·믹싱·마스터링이 가능한 전문 녹음실, 5개의 개인 작업실 및 2개의 밴드 작업실 등이 있고, 다목적홀에서는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만남이 이루어진다. 희귀 음반과 공연 영상 DVD, 다양한 책과 만화도 비치되어 있어 작업과 동시에 새로운 음악적 자양분을 얻고 있다.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음악인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원하는 작업 공간과 공연장은 물론이며 악기와 프로그램 사양까지 철저히 이용자에게 맞추어진 공간으로 만들었다.

서울 음악창작소 공간 구성

- 공연장(라이브룸): 좌석 50석, 스탠딩 80명 수용 가능한 소극장·음향·조명·영상 시스템 완비(음향/조명 엔지니어 포함). 아티스트의 편안한 대기를 위한 분장실 보유. 공연뿐만 아니라 대규모 녹음을 위한 부스, 영화 상영, 세미나, 실연 심사장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가능
- 녹음실(스튜디오): A급 전문/프로 녹음스튜디오 수준의 시스템. 녹음·음향 장비 및 악기 완비. 음향 엔지니어와 음향 보조 상주. 쾌적한 녹음 환경을 위해 피아노·드럼부스 분리. 녹음 외 라이브 녹음, 영상 촬영 공간으로 활용 가능
- 개인 작업실: Mac 기반의 Logic과 Windows 기반의 Cubase,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VSTi 설치
- 밴드 작업실: 연습을 위한 최상의 악기 완비. 창작물을 가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 다목적홀(홀룸): 음악가들의 쉼터로 제공. 500여 장의 희귀 음반 및 라이브 실황 DVD, 만화책과 음악 관련 서적, 간행물 구비
- 간이카페(카페팅): 작업 중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는 간이카페. 캡슐커피머신, 전자레인지, 냉장고 이용 및 음료 구입 가능

→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

출입구



→
잠시 멈춰 머무르는 공간

©본종합건축사사무소



지하계단



©본종합건축사사무소



지하보도



©본종합건축사사무소



다목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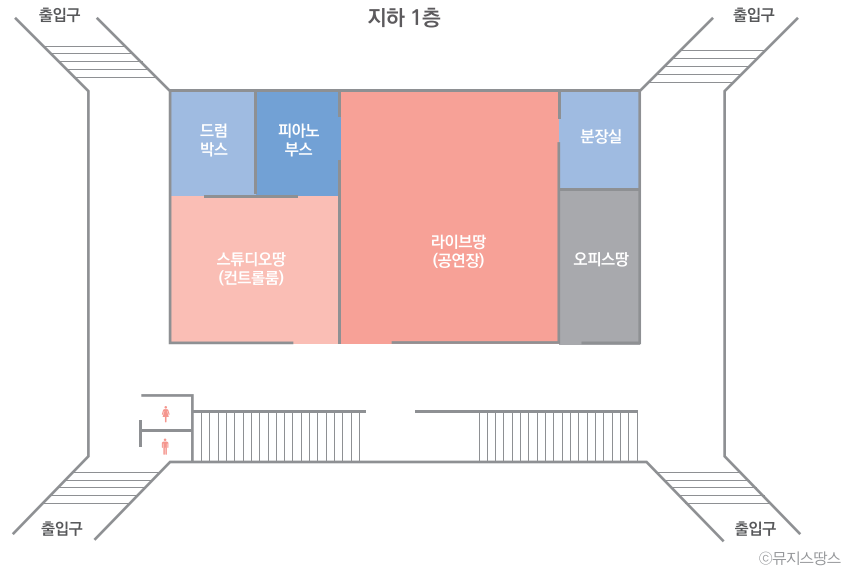
©본종합건축사사무소



©뮤지스팡스



지하 1층 주요 공간 구성



피아노 부스



복도에서 본 스튜디오방, 라이브방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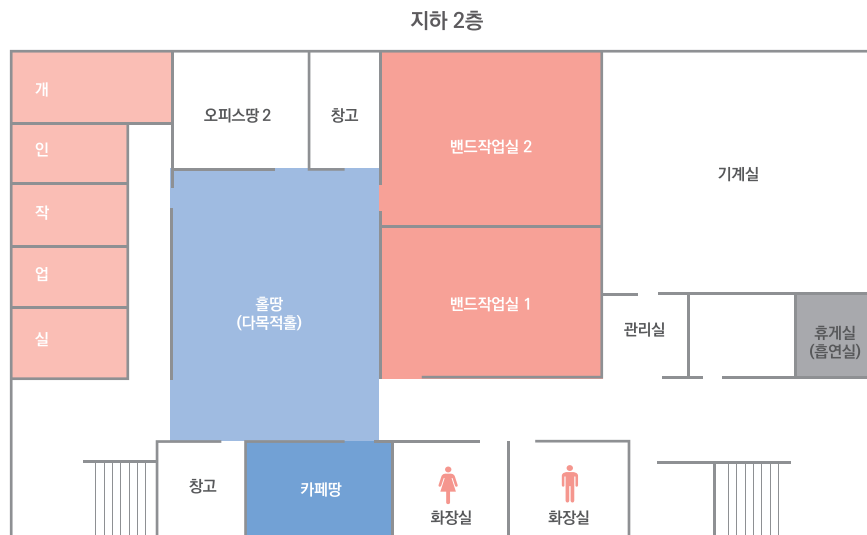


스튜디오방



라이브방

지하 2층 주요 공간 구성



©뮤지스페이스



개인 작업실



밴드 작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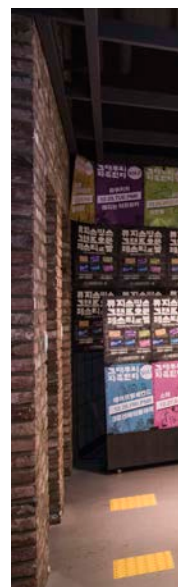
홀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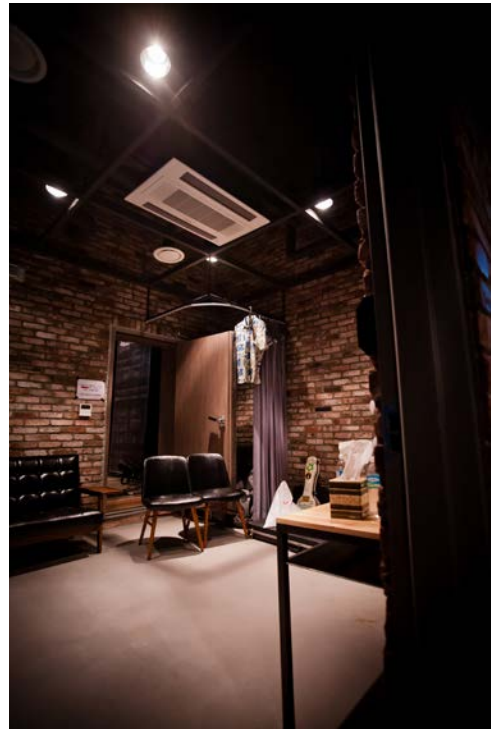


카페坪

II. 창작 독립 음악인들의 놀이터, 뮤지스땅스

뮤지스땅스 공간 곳곳에는 아티스트 포스터와 다양한 책과 앨범들이 자리하고 있어 즐겁게 머무를 수 있다.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성스레 만든 곳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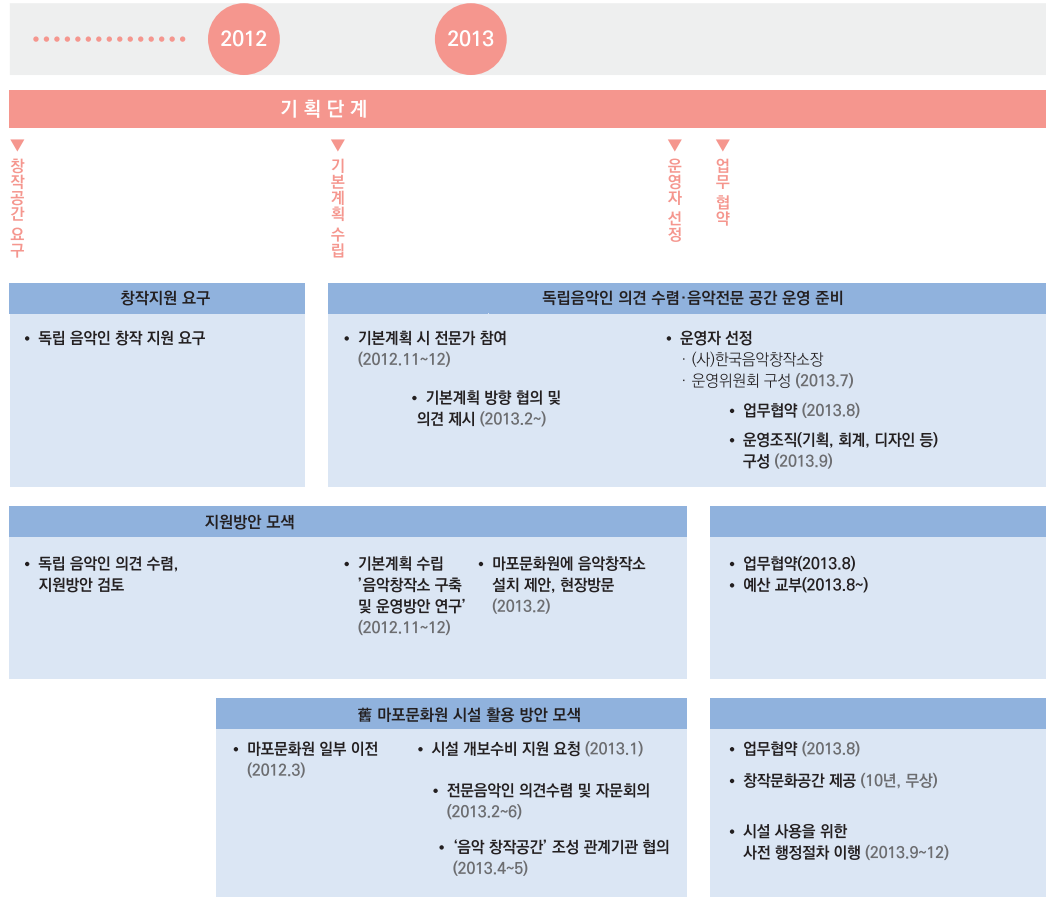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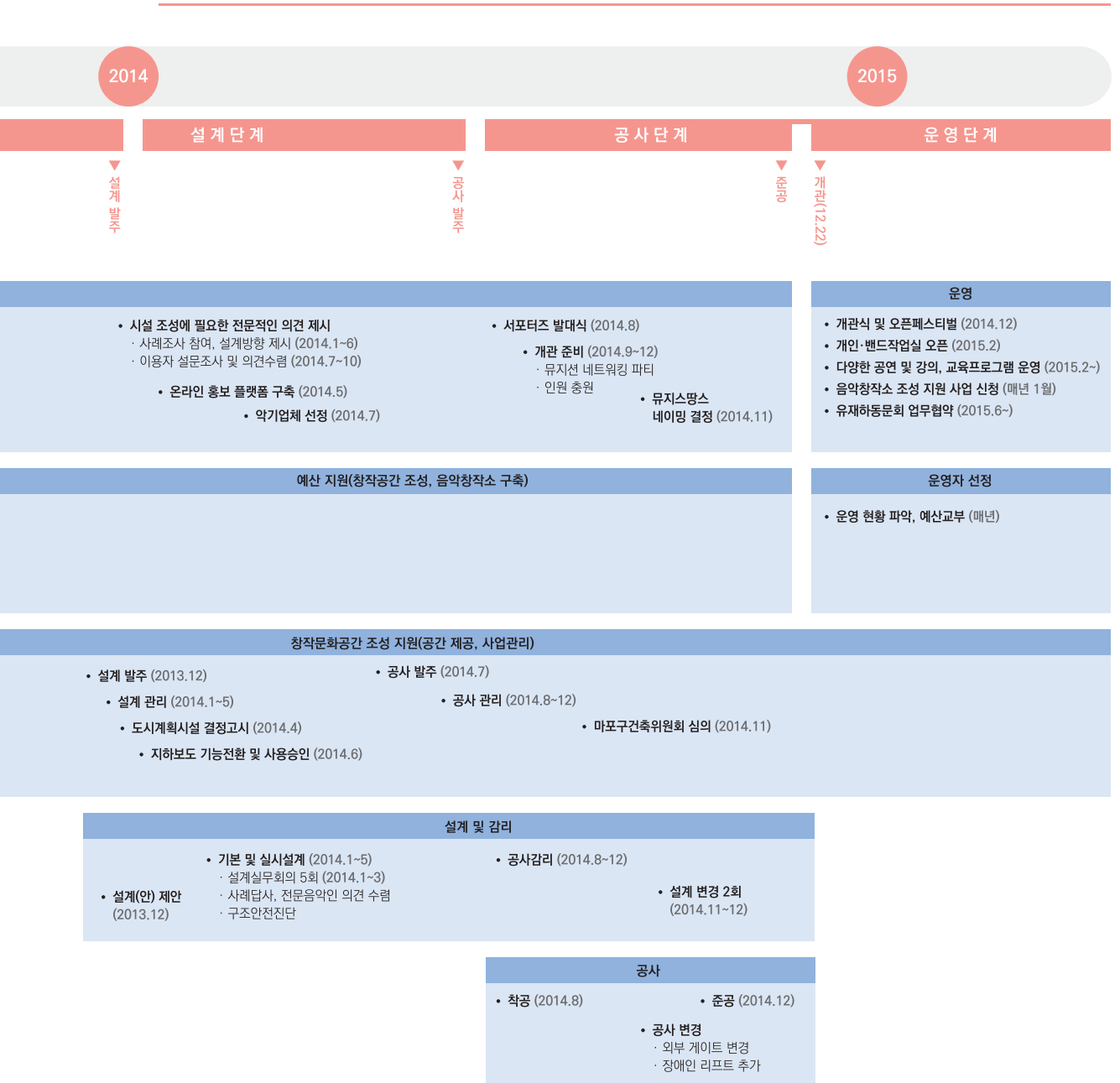


©뮤지스페이스

‘뮤지스땅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조성 과정





기획단계 주체별 역할을 설정하고 함께 협의하며 철저하게 준비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내 음악산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 연구('음악창작소 구축 운영방안 연구', 2012년 12월)를 실시하여 공공 지원 필요성에 대한 검증, 적정 도입 시설의 규모, 입지 장소, 이용자 요구 파악, 관리 및 운영 방안 등을 검토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악창작소 구축 운영방안 연구」-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다른 사업들과의 차별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인디 음악, 비활성화 장르에 대한 창작 공간 구축에 집중
- 음악산업의 제작 특성상 주로 개인 및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제작이 이루어지므로 음악창작소를 활용한 음악산업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인적 교류 증진
- 실제 부지 및 건물을 구입하는 것보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간 자체를 특색 있게 만들 필요
- 녹음 스튜디오 및 합주실을 갖추고 정기 공연과 이벤트를 통해 일반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구성
- 민간 전문가 집단이 운영을 맡아 음악창작소의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상주 엔지니어, 운영 직원 필요)

이후 마포문화원 이전으로 비워지는 지하의 노후한 유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마포구와 함께 음악창작소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2013.1~3)하고 홍대 지역 독립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를 진행(2013.2~6)했다. 또한 음악 창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발전소 최백호 소장에게 음악창작소의 운영을 제안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었다. 운영자를 중심으로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가 구축(2013.7)되면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설계·시공·운영의 모든 과정을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서울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1기 명단 |

2013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마포구, 사단법인 한국음악창작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0년 동안 지하보도(마포구 소유)와 지하 공간(서울시 소유)을 리모델링하여 연습실, 공연장, 녹음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창작문화 공간 조성	음악창작소 설치·운영
위치	구 마포문화원 청사(지하 1·2층) 아현 지하보도(일부)	창작문화 공간 내
사업내용	창작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 음악, 예술인, 홍대문화 등의 콘텐츠를 주제로 디자인 공간 구성 ● 시민들이 독립 음악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구성 ● 지하시설, 소외된 예술 등의 부정적 느낌을 밝고 깨끗한 이미지로 개선 	창작 공간 활용(영상·레코딩 스튜디오 및 미디어·온라인 설비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창작의 꿈을 이루고 창작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 지원체계 구축 ● 마포·홍대 지역 독립 음악인(단체)들의 자생력 강화 ● 음악인과 창작물이 대중과 만나 소통하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활용
역할	사업비부담 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국비 15억 원) 마포구	문화체육관광부(국비 2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음악발전소
협약기간	10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당초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는 3개월(2013. 9~11월)로 예정되었으나 서울시·마포구·도시철도공사 등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일정이 지연되었다. 결과적으로 2013년 12월 설계자가 선정되고, 2014년 7월에 이르러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이 이루어졌다.

마포구는 도심 속 노후한 지하 공간을 음악창작을 위한 우수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 운영자와 긴밀히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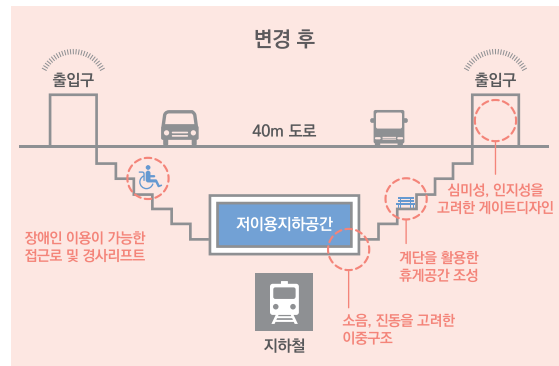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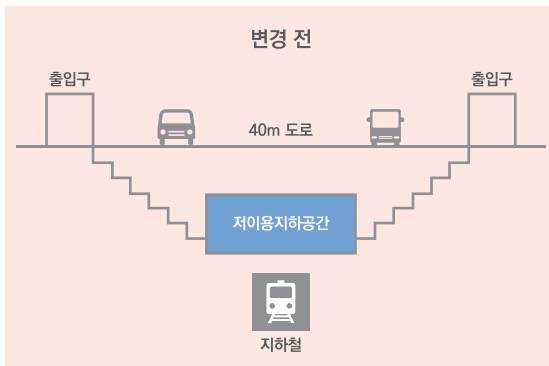
마포구청 박홍섭 구청장, 문화체육관광부 류진룡 (前)장관, 한국음악발전소 최백호 소장

설계단계 노후한 지하공간에 음악 전문 공간을 담아내다

사업 대상지(구 마포문화원) 위는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40m 대로이고 아래는 5호선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으므로 소음과 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이었다.

음악을 녹음하고 편집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람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진동과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이중구조를 적용했고 장애인(음악가, 일반인) 및 악기·장비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검토했으나 지하철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과 협소한 공간, 예산 문제 등으로 경사형 리프트를 설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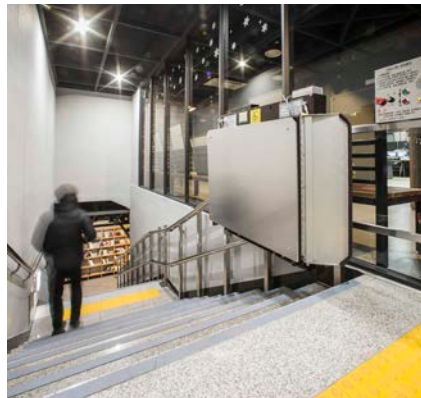


| 단면 투시도 |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는 고밀도의 고층 주거 및 빌딩으로 구성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를 투영할 수 있는 투명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한 예산을 고려하여 기존 골조 및 마감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재료(벽돌, 구로강판, 유리 등)를 활용하여 어둡고 삭막한 지하 공간을 사람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열린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계획했다.

리프트 설치



투명한 출입구



©뮤지스텝스

주 마감재료



©본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 관계자들은 독립 음악인들이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전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리모델링이 어려운 지하 공간을 생소하지만 섬세한 시설(창작, 녹음, 공연 등)로 조성하는 데 많은 우려가 있었다. 성공적으로 시설을 조성한 가장 큰 요건으로 설계자 및 발주자(마포구)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열정적인 전문 음악가(최백호)인 운영자가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한 점이라고 말했다.

독립 음악인들의 성향과 필요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운영자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서 제시하고 시설이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부터 세부적인 인테리어 요소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설계자와 독립 음악인 사이의 간극을 이어주는 소통 창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개관 전까지 지속적으로 독립 음악인들에게 설문을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전문적인 음악작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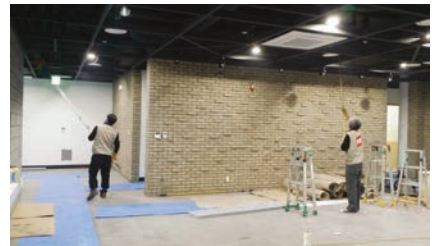


©마포구

공사단계 지하 리모델링 공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래되고 협소한 지하 공간은 공사 기간 내내 불리한 조건이었다. 철거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뿐만 아니라 계단으로 폐기물·자재·장비 등을 옮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작업은 예상보다 힘들게 진행되었다.

공사 기간이 짧지만 성공적으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설계자는 건축공사 감리를 겸하면서 시공자와 긴밀히 협업했으며, 시공자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가급적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발주기관도 최대한 운영자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 의도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그 외에도 특수 성능(녹음, 공연, 지하 공간)의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감리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용했다.



©마포구

운영단계 꿈꾸는 독립 음악가들의 놀이터로 자리 잡다

개관 이후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혀 갈 곳을 잃었던 독립 음악인들에게 편안한 작업 공간과 수준 높은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뮤지스땅스는 한 달에 800~900명의 음악인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다.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하여 녹음·믹스·마스터링까지 지원하며 전체 음반 발매 과정의 80%를 소화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무소속프로젝트’를 통해 실력 있는 음악가를 발굴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독립 음악인과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파티’를 연 2회 개최하는 등 독립 음악 창작 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홍보, 유통, 저작권, 믹싱 등 음악 창작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초지식 강연(DIY, MUSICIAN)을 열어 독립 음악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있다.

하지만 입지 선정이나 공간 활용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음악창작소는 수요층이 한정되어 있는 특수한 시설이므로 독립 음악인들이 밀집한 장소이거나 공연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편리한 장소라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지하 공간에 시설을 조성하다보니 녹음실(스튜디오방)과 공연장(라이브방)이 인접하여 두 공간을 동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뮤지스땅스

음악인들이 주로 작업하는 새벽 시간까지 시설을 개방한다면 이용자가 더욱 많겠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현재는 밤 11시에 문을 닫는다. 매년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어 자립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시설 이용료를 올리면 독립 음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생산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공연장 확대도 지하 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 음악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하여 문화 다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음악창작소와 같이 문화적 기반 시설은 수익성 확보보다는 최초의 설립 목적처럼 실질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 같이 공연할까요



2. 네트워킹파티



3. DIY, MUSICIAN



4. 무소속프로젝트 후속지원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만족하는 ‘놀이터’

만족도 조사 결과 (2017.9)

뮤지스팡스 사업은 기획 초기 단계부터 기본 계획 연구를 수행하여 독립 음악가의 현황과 활동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창작음악소 테마를 설정하여 공간을 계획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뮤지스팡스는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높이 평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독립 음악인의 음악활동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그렇다면 개관(2014년 12월 22일) 후 약 3년이 지난 현재, 실제 뮤지스팡스를 이용하는 음악인과 운영자는 시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17년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시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뮤지션 3인(재주소년(박경환), 에코브릿지, 이한철)을 심층 인터뷰했다. 같은 기간에 운영자의 만족도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운영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2명과 직접 인터뷰했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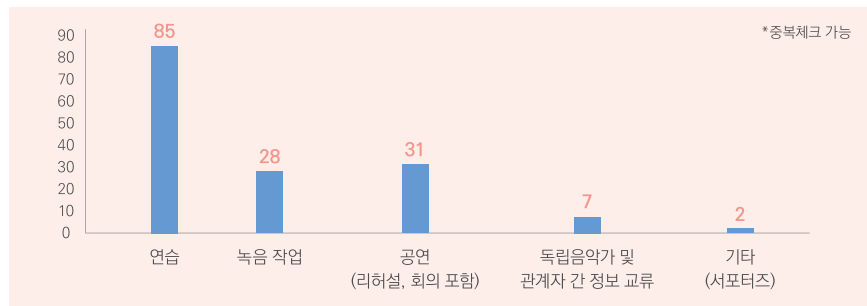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요약			연령대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용자	남성	66	0	30	28	7	0	0	1
	여성	34	0	18	15	1	0	0	0
	합계		100						
운영자	남성	3	0	1	1	0	0	1	0
	여성	7	0	4	2	0	1	0	0
	합계		10						

| 조사대상 특성 및 기초 통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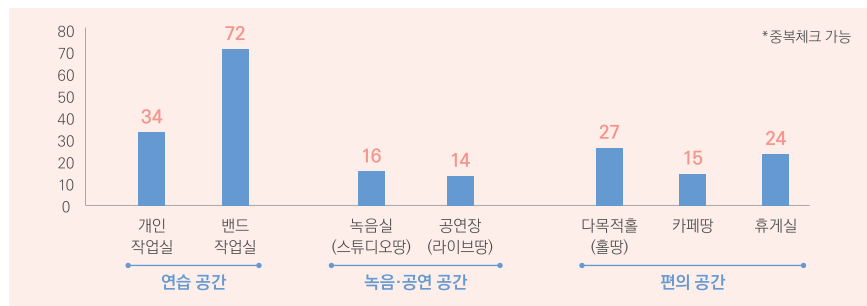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결과

설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66명)이 여성(34명)보다 높았으며 연령대는 20~30대가 전체의 91%로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음악 경력은 5~10년(35%), 10~20년(33%), 1~5년(25%) 순으로, 경력자뿐만 아니라 신진 음악인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밴드(69%)에 소속된 음악인의 비율이 개인 음악인(24%)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주 이용 공간에 대한 질문에서도 개인 작업실보다 밴드 작업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 분포는 전업 음악인(55%)과 겸업 음악인(35%)의 비율이 높아(90%) 전문 음악인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뮤지스땅스의 방문 목적은 ‘연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월등히 많았으며(85명), 그다음으로 공연(31명)과 녹음(28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중복 응답). 이용 시간은 응답자의 66%가 1~3시간이라고 응답했으며, 시간대는 오후(59%)와 저녁(40%)의 비율이 99%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월 1~2회(35%)와 주 1회(33%)가 높게 나타났는데, 주 2회 이상 방문하는 이용자도 12%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고정 방문객 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일은 토요일(23%)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용자의 교통수단은 지하철이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소요 시간은 평균 47분으로 나타났다. 자가용(34%, 평균 소요 시간 40분)과 버스(16%, 평균 소요 시간 36분)의 이용 비율도 높으며,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매달 1~2회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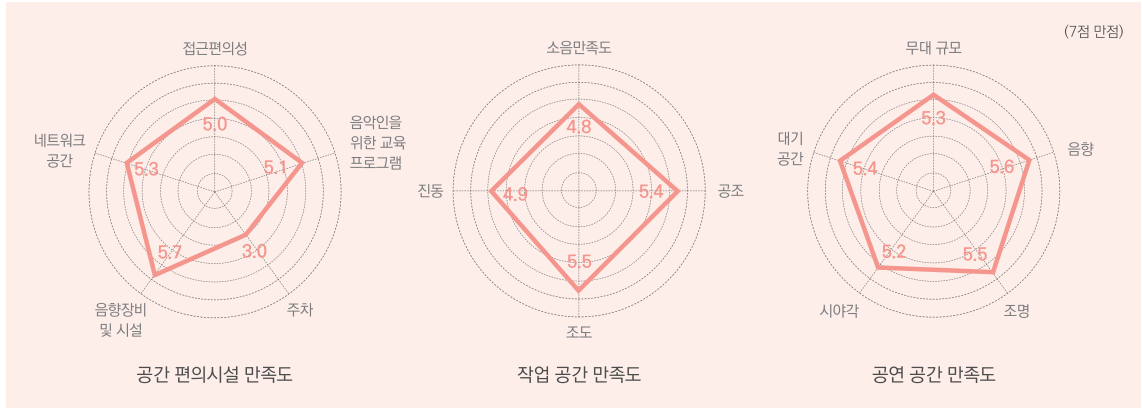
| 방문목적 |



| 주 이용 공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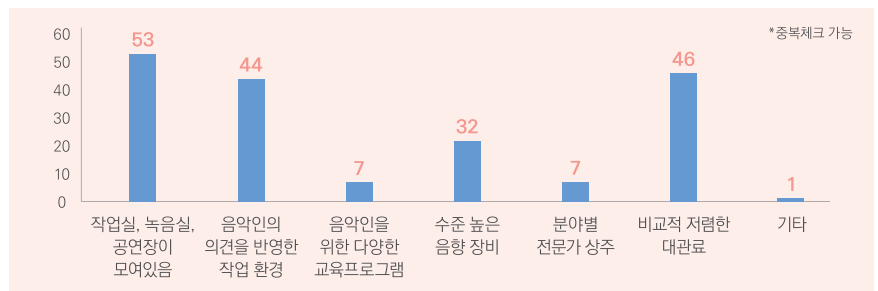
뮤지스땅스 이용자들은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90%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에 이르렀으며, 불만족스럽다는 1명을 제외한 99명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작업 공간에 대해서는 조도(5.5점)와 공조(5.4점)에 대한 만족도가 소음(4.8점)과 진동(4.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연 공간에 대해서는 음향(5.6점)과 조명(5.5점), 대기 공간(5.4점), 무대 규모(5.3점), 시야각(5.2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시설의 음향장비와 시설에 대한 높은 만족도(5.7점)를 보였다.(7점 만점 기준)



| 만족도 상세 표 |

유사 시설 대비 뮤지스팡스의 우수한 점이 무엇인냐는 질문에는 작업실과 녹음실과 공연장이 모여 있다는 점을 가장 높이 평가했으며(53명), 저렴한 대관료(46명), 작업환경(44명)과 수준 높은 음향 장비(32명)를 우수한 점으로 꼽았다.



| 우수한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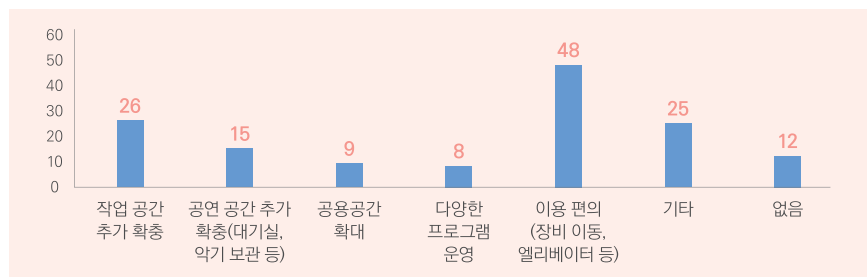
심층 인터뷰에 응한 전문뮤지션 역시 수준 높은 음반 작업환경, 연습 공간과 공연장이 한 곳에 갖추어져 있으며 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뮤지스팡스의 장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 뮤지스땅스의 이용료는 저렴하지만 음악 창작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한 공간에서 연습·녹음·공연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큰 장점이다. **재주소년**
- 뮤지스땅스에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뮤지션들이 음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최상급 장비와 악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밴드 작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다. 공연장(라이브방) 시설도 훌륭하다. 관객과 거리가 가까워서 친밀도가 높다. **에코브릿지**
- 뮤지스땅스의 녹음시설과 장비가 훌륭하다. 음악인이 사업 초기부터 관여해서 뮤지션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다. **이한철**

뮤지스땅스는 개인 연습공간이나 기획사와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인이 모인다.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가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뮤지스땅스에서 다른 음악인과 교류하고 전문 지식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뮤지스땅스에는 넓은 홀(홀방)이 있어서 음악인들끼리 교류할 수 있고 쾌적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좋다. **재주소년**
- 음악인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작업하고 즐기면서 음악적 자극도 받고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다. 뮤지션 네트워킹 파티가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한철**
- 뮤지스땅스에서는 음악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저작권, 홍보, 콘텐츠 유통, 세무·회계)을 운영하여 음악인들의 자립을 돕는다. **에코브릿지**

뮤지스땅스의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장비 이동과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48명), 그다음으로 작업 공간을 보다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26명)과 공연 공간(대기실과 악기 보관 등) 확충(15명)을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



| 개선 사항 |

인터뷰에 응한 전문 뮤지션 역시 이용자의 접근, 장비 이동의 어려움을 들어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 뮤지션들은 이 외에도 연습 시 인접실의 소리 전달, 공연장의 시야각, 수납 공간 부족, 뮤지션과 관객의 동선 교차, 녹음실의 음향 컨트롤 문제를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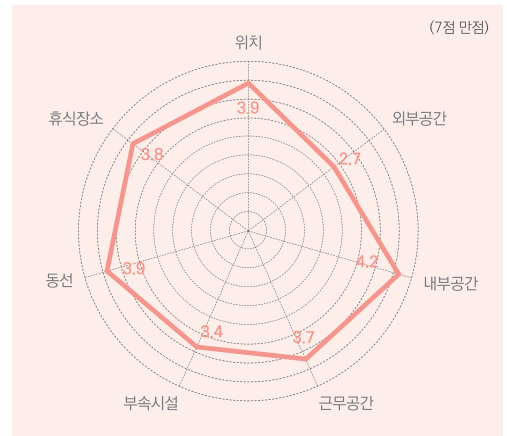
- 대중교통으로 쉽게 올 수 있고 기타 하나만 들고 다니는 뮤지션은 불만이 없으나 큰 악기와 장비를 반입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 **재주소년**
- 2015년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리프트 이용 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애인들이 불안해했다. **이한철**
- 공연 전에 뮤지션은 무척 예민하다. 가급적 관객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이 좋다. **재주소년**
- 향후 유사 시설을 조성할 때는 쾌적한 환경의 대기실을 보다 충분하게 확보하면 좋겠고, 공연 전에 팀원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꼭 필요하다. **에코브릿지**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 외에는 운영 시간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뮤지션들이 야간 작업을 선호하지만 뮤지스팡스는 23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작업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면담자들은 이용자의 활동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시간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운영자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결과

운영자 만족도 조사 결과, 내부 공간 만족도(4.2/5점)가 비교적 높았으며 위치, 동선, 휴식장소 및 부속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3.9~3.4)으로 나타난 반면, 외부 공간(2.7/5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운영자들은 대체로 음악창작소의 작업·연습·녹음·공연 공간을 음악인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환기 및 공



| 운영자 만족도 |

조 설비가 잘 조성되어 공간이 쾌적하고, 음악인의 자유로운 성향을 반영한 실내 분위기 덕분에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하철과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한 점 또한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응답했다.

엘리베이터 부재로 이동이 불편한 점은 운영자에게도 큰 고민이었다. 개인 장비를 들고 다니는 뮤지션, 장애인 뮤지션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또한 전용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동에 큰 제약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회의 공간이 부족하고 창고 등의 저장 공간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창고에는 필요에 따라 고가의 음악 장비를 보관하게 되므로 온도와 습도가 세밀하게 조절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만족하는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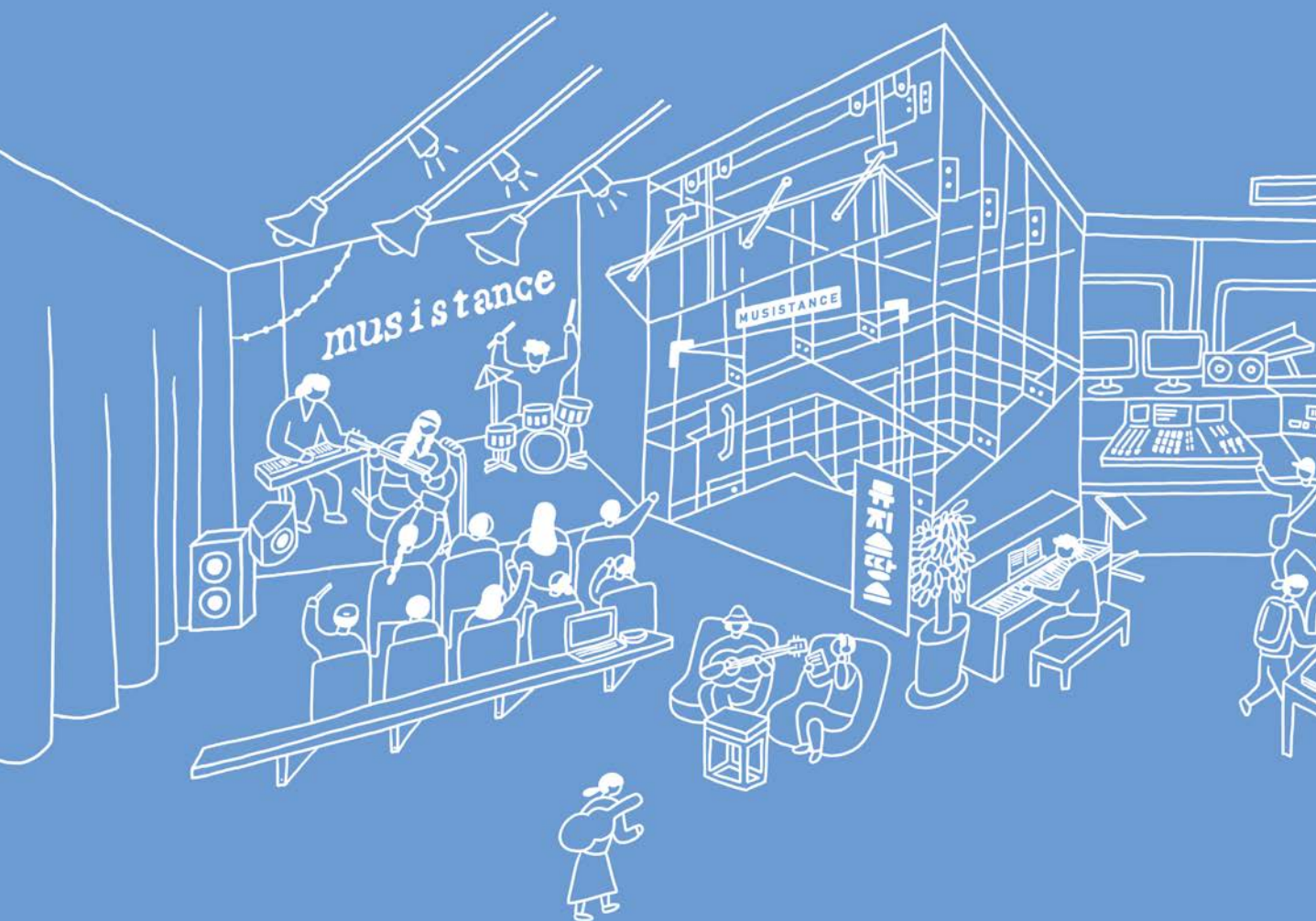
뮤지스팡스 이용자 및 운영자, 모두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부터 관련 전문가와 이용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어 독립 음악가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간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시설 특성을 고려할 때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함에 따라 장애인 및 장비 운반 등 편의를 고려한 수직 동선 확보(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가 불가능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뮤지션들의 주요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고, 향후 유사 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양한 행사(공연, 네트워킹파티, 강연 등) 전후를 고려하여 외부 공간(광장, 주차장 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뮤지스팡스는 하나의 시설을 기획하고 조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목적과 기능,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여 추진한 우수 사례이다. 공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관련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이 더해지고 사용자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공공건축 02
독립 음악인의 창작 공간

뮤지스팡스, 그 후



창작 독립 음악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 방향

최 백 호 소장

(사)한국음악발전소,
뮤지스텝스 대표

음악 분야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시설을 건립하거나 공연 개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예술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예술가의 요구, 지역 여건과 입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공급하는 것에 치중한 결과, 지자체의 문화예술회관 등의 시설은 건립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음악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시민은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기획 단계에서 음악과 건축, 공연 기획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음악인들이 요구하는 활동은 무엇인지, 음악활동을 위한 공간은 어떠한지, 공연을 다양한 계층이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주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대중과 음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기보다 관련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특수한 수요층을 가진 공연 공간이 활발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 특성과 접근성 등 시설의 입지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공연 이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곳, 오래 집단이 모여 그들만의 문화가 생성되는 곳에 음악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유도공원에 주목하고 있다. 젊고 새로운 음악활동의 본거지인 홍대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거리공연(버스킹)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고 대규모 야외공연장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것,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지만, 자칫하면 공공 예산을 투입한 공연 시설이 저이용될 우려도 있다. 기존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

음악인을 위한 창작 공간 지원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도 고려해야 하지만, 잠재력이 큰 지역에 지원을 집중한다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부터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9개의 음악창작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공간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악인의 창작 공간에는 연습·녹음·교육·공연 공간이 모여 있어야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시설을 공급하기보다 지역 여건과 음악인의 요구를 고려하여 시설마다 고유의 기능을 부여하고 여러 시설을 연계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의 지원이 실제로 음악인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다지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의 시설이라도 제대로 자리 잡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다.

신나게 즐기며 창작하는 음악 공간을,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꿈꾼다

김민규 대표
일렉트릭 뮤즈

오늘날 대중음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지만,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 공공 지원의 역사는 길지 않고 사업 규모와 예산도 적은 편이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음악 창작과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독립 음악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류하면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중요한데, 음악창작소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등에 작업·녹음·공연 공간을 갖춘 음악창작소가 조성되었으며, 많은 독립 음악인이 음악 작업을 하고 동료와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음악을 만들고 있다. 또한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여 음악인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일반인과 주민이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공간이 음악인이 쉽게 오가지 못하는 장소에 위치하거나 지역에 전문 음악인이 적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음악 창작 공간은 작업과 교류,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곳에 입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인이 신나게 즐기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음악인의 창작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음악 창작을 준비하는 독립 음악인, 전문성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전문가, 음악을 함께 즐길 일반인 등 다양한 주체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교류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시는 SXSW(South by Southwest)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음악도시가 되었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컨트리 음악을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오스틴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음악활동을 지원하고 행사를 개최했다. 이후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오스틴을 찾았고 점차 음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 SXSW는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와 예술, 첨단기술을 다루는 축제이자 컨퍼런스로 자리 잡았고, 인구 약 90만의 중소 도시가 세계의 음악인과 예술가, 첨단기업의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음악에 대한 지원은 단지 음악인을 배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음악과 예술을 활성화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과 도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음악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자. 음악인들이 신나게 즐기며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공간을, 음악과 함께 흥겨운 삶이 펼쳐지는 지역을, 음악을 통해 발전하고 성장하는 도시를 꿈꾼다.

뮤지스팡스 주요 프로그램

● 실력 있는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무소속 프로젝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디 뮤지션을 발굴, 지원하는 콘테스트입니다. 최종 선정된 10여 팀에게는 전문 자문 위원단 연계, 컴필레이션 앨범 제작, 작업실 지원, 프로필 촬영, 상금 등을 통해 창작활동 전반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단독공연 지원, 작업실 지원, 협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함께하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싱글 녹음 지원 프로그램 “OPEN THE RECORD”

뮤지스팡스의 녹음 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 싱글 앨범을 제작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뮤지션을 대상으로 녹음부터 믹싱, 마스터링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단독공연 지원 프로그램 “단공전展”

뮤지스팡스의 단독 공연 지원 사업입니다. 창작곡 60% 이상으로 최소 60분의 단독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인디뮤지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공연장 및 공연에 필요한 인력을 무료로 지원하여 단순 공간 대관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뜻 깊은 단독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뮤지션 맞춤 강연 프로그램 “DIY, MUSICIAN”

홍보, 유통, 저작권, 미디 등 창작 활동을 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했던 지식을 나누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뮤지스팡스의 공연장과 작업실은 지원 대관을 상시 운영하며, 이와 함께 뮤지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안내

운영시간 상시 운영(10:00~23:00), 명절 및 매주 월요일 휴관

- 오피스텔1(B1) - 운영지원팀(월~금, 10:00~18:00), 행사 대관, 사업 관련
- 오피스텔2(B2) - 기술지원팀(화~일, 14:00~22:00), 공연장·녹음실·작업실 대관, 기술 관련
- 작업실 - 10:00~23:00

찾아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38 지하(아현동 600-2)
전화 02-313-7865



**인근
지하철 역**

2호선 아현역 3번 출구,
5호선 애오개역 2, 3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

정류소
아현초등학교(정류소ID: 14-009)

- 간선버스(파란버스) 160, 260, 600
- 지선버스(초록버스) 7013A, 7013B, 7611
- 광역버스(빨간버스) 2500
- 일반버스(초록버스) 1002



**자가용
이용 시**

별도의 주차공간 없음.
대중교통 이용 권장



(2017. 12 현재)

좋은 공공건축 02

독립 음악인의 창작 공간

뮤지스페이스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펴낸이 김대익
엮은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자은이 임유경, 김지현, 김수빈

출판등록 제569-3850000251002008000005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자우편 npbc@auri.re.kr
홈페이지 www.auri.re.kr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www.npbc.or.kr)

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www.credada.com

비매품

ISBN 979-11-5659-156-6
979-11-5659-154-2 (세트)

*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auri.re.kr/> 및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npbc.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9 791156 591566



94350

ISBN 979-11-5659-156-6

979-11-5659-154-2 (세트)